

‘카셰어링’ 청소년 무면허 운전 악용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운전사고 170건 발생
단속 형식적 수준 그쳐... “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카셰어링(차량 공유)’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대면 계약으로 이뤄지는 렌터카와 달리 카셰어링은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져 도용된 아이디 등을 통해 운전면허 없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사이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고가 약 2배 증가한 만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강력한 처벌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고는 17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812건)의 2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건, 2017년 34건, 2018년 33건, 2019년 30건, 2020년 4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카셰어링’ 또는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화순읍에서 고교생인 A군(18)이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면허가 없는 A군은 카

셰어링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를 빌려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던 C군(19)이 구속됐다.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던 C군은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승용차 1대와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복은 이렇게 입어요

28일 오전 광주 신용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한복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사와 함께 올바른 한복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가 ‘카셰어링’ 사업의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시간만큼 차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느슨한 면허 검사의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신원 검사는 허술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는 목소리가 크다.

업주에게 과태료를 상향하는 처벌 강화

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차를 빌리는 악용 사례를 막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 단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순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전에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카셰어링 시스템에 인증 강화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뇌사 상태’ 50대 언론인 나눔 실천

전남대병원서 장기 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아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다들 제 역할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단다.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지나침이 없이 성장해 다오.”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언론인 장기 기증해 중환자 3명에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전기신문사에서 25년간 기자로 근무한 여기봉씨(52·사진)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신장, 간 등 장기 기증을 기증하고 숨졌다.

여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뇌 경맥류가 터지면 서생긴 뇌출혈이 원인이었다.

여씨가 뇌사 판정을 받자 가족들은

평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심했다.

여씨의 아내 이희경씨(50)는 “생명 나눔은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기증을 결정하면서부터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고 믿기에 이러한 결정이다.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하루 6명꼴 개물림 사고 노출

5년간 1만1,152건...광주 226·전남 708건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6명이 개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만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909건이며 다음으로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이었다. 광주는 22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893명)였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민원 8년새 ‘4.8배’

갈등 68%가 ‘걷는 소리’...정책은 제자리

전남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1,829건에서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 접수된 2단계 층간소음 민원 6만61건의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마치질 2,588건(4.3%) ▲가구 소음 2,224건(3.7%) 등 순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작년

6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지만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까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대 의대 연구팀 “비만이 기억력 저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비만이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전남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송주현(해부학교실), 김영국(생화학학교실) 교수팀은 비만이 뇌 속의 특정 원형 RNA(circTshz2-2)를 현저히 증가시켜 신경세포 성장인자(BDNF)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신경 세포주기와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조절 뿐만 아니라 기억력 형성을 억

제한다는 사실을 원형RNA 제거 및 과발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는 비만에 의한 기억력 감소가 신경세포주기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분자정신의학’ (인용지수 15.992, 신경과학 분야 상위 2.015%) 9월 24일자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연구의 제1저자는 윤광호 박사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나라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5천 (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 5천 (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6억8천 (용 4억) 월수익 30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후,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격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10월 개강!! 경매 배우실분</p> <p>(특수경매전문)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직업으로 경매(부동산)하실분</p> <p>★10억 물건 -> 3억에 낙찰가능★</p> <p>062-382-5500</p>